

글로벌아시아의학회	영문 Global Asian Medicine Association	
	약어 GAMA	
설립일	2004년 5월	홈페이지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 3동 325-21	전자우편
전화번호	02) 822-1075	우편번호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393841	팩스번호
		후원지로
		gamakorea@gmail.com
		156-839
		02) 822-1074

■ 설립취지 및 이념

1. 치유사역자들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한 ‘천국복음’ 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치유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한다. 3. 치유 사역자들로 하여금 학문연구와 믿음 생활을 독려하여 주님 제자와 삶을 살도록 한다. 4. 치유사역자들로 하여금 총체적 치유활동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한다. 5. 치유사역자들을 비롯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 교제 및 동역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비전을 품은 동역자들을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 그리고 자발적인 재정적 지원 활동에 기여한다.

■ 단체역사

2004년 5월 설립 : 손영규 목사를 중심으로 ‘중국누가운동본부’ 발족, 2004년 8월 북경대회, 2005년 8월 중국누가운동본부 북경대회 (참가인원 46명), 2006년 7월 북경대회 (참가 인원 30명), 2007년 2월 겨울북경대회 (참가인원 21명), 2008년 2월 겨울상해대회 (참가인원 58명), 2008년 7월 여름북경대회 (참가인원 58명), 2009년 2월 겨울북경대회 (참가인원 47명), 2009년 5월 글로벌아시아의학회(GAMA)결성, 중국누가운동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함, 2009년 7월 여름 강화대회, 2009년 8월 글로벌아시아학회 비전선포식, 2010년 2월 겨울 상해대회, 2010년 8월 여름 서울대회

■ 단체조직

이사회 이사장: 권혁성 / 이사: 강주봉, 길제호, 김동욱, 김병로, 손영규, 최주학, 황희숙 / 감사: 임영창, 조현진 / 실행위원회 : 대표회장 : 손영규 / 공동대표: 김성일(미국대표), 강주봉(한국대표) 소영근(호주대표) / 임원: 권혁성, 김병로, 최주학 / 총무: 김동욱

■ 주요 사역 내용

- 누가양성사역-아시아의학 전문인들을 기독교인 및 의료 선교사로 발굴, 양성
- 선한 사마리아 사역 - 의료를 통해 현지인 진료
- 바울/누가사역 - 현지 교회, 선교사들의 사역지원, 선교사가정의 전인건강 상담 및 관리
- 아시아의학원사역-현지의 아시아의학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을 설립
- 병원(진료소) 및 선교 현지 자연의학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 사역

■ 단체성격: 파송단체, 훈련단체

■ 사역종류: 구제, 의료선교, 전문인사역

■ 전체 선교사 수: 12명